

미래인류는 남녀 구분이 따로 없는 양성구유(兩性具有)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연 진화가 아닌 인위적 방법으로.

미셸 우엘베크이라는 프랑스 작가는 그가 쓴 소설 '소립자'에서 황당하게도 미래인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린다.

'소립자'에는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지금 인류를 대체시킬 미래인류로 나올, 그 '새로운 종'은 남녀의 구별이 없다. 개체마다 남성성 여성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후손번식의 생식방법으로서의 남녀간 사랑도 물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사랑의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현생 인류의 즐거움은 어떻게 될까? 그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된다. 지금 인류에겐 무아의 경지를 이끌어 내는 '크라우제 소체'라는 것이 신체의 몇 군데만 분포돼 있다. 따라서 그런 경지를 얻기 위해 번거로운 행위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새로운 종으로서의 신인류'에게는 크라우제 소체가 신체 여러 곳에 널리 퍼져있다. 타인과 피부만 닿아도, 아니 혼자서 피부만 쓰다 들어도 그 쾌감과 즐거움을 언제든지 맛보게 된다. 마약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임신과 출산은? 소설에서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오늘날의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생명과학, 또 다른 판도라 상자

생명과학이 보여주는 가능성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역시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코미디이긴 하지만 남성배우 '아놀드 슈워츠네거'가 스스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기르는 내용의 할리우드 영화 '주니어'는 이미 오래된 버전이고, 이제 영화는 '아일랜드' 등 인간 복제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과학자들이 인간의 난자만을 가지고 마치 남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것처럼 세포 분할을 하는데 성공, 이른바 유성(有性)생식이

아닌 단성(單性)생식의 '아빠 정자 없는 무성수태' 가능성을 열었다고 전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세계최초로 '아빠 없는 쥐'를 탄생시킨 실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여러 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성생식의 성공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는 생명과학분야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와는 또 다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줄기세포 쪽 보다는 해결해야 할 장애가 더 많은 연구로 알려져 있지만, 단성생식의 성공이 가져 올 인류의 변화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한

다 하겠다.

현재의 과학적 결과로 보면, 여성은 단성생식으로 끝없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로서야 난자의 도움 없이 정자만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연구해내야겠지만...

물론 이런 연구들은 지금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 신체의 개량, 또는 개선의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외면할 과학자들이 있을까? '황당한 소설적 상상'이라 치부되는 소설 '소립자'에 등장하는 양성구유의 '미래 인류 상'이 그럴듯하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 이유다.

이를 가정한다면 천지개벽이 따로 없다. 동성애에 대한 세계적인 새로운 관심, 남녀관계 변화 등등 자극의 사정들을 보면서 이런 증상이 혹시 현생인류 적 여러 특성들을 인류 스스로가 거부해 가는 초기적 조짐은 아닐까 하는 영문한 생각이 든다.

생명과학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때마다 이에 환호한 하기도 우리가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어느 시대이나 그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해야 할 종교라면 더욱 그렇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대중사가 9월 11일 원적에 들었다.

2년 7개월간의 총무원장 재직중 스님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기에 이렇듯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절절하기만 하다. 덕총림 수덕사의 가풍을 이은 스님은 일찍이 제방선원을 다니며 참구정진에 힘써왔으며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종진자에 매진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

특히 스님은 더러 정치적 술수와 비난이 횡행하는 종단풍토 가운데서도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다"라는 소신을 늘 견지해 왔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종무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기에 종도들은 실로 믿음직스러워 했다.

스님의 일생은 자비와 원력의 보살, 바로 그것이였다. 불우한 어린이를 내 몸처럼 거두고 재소자교회에도 눈길을 돌렸

법장 스님의 '바람'이 되자

으며, 종단의 내입을 위해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종단 수장으로서 스님의 활동영역은 종단을 넘어 국내외로도 펼쳐졌다. 특히 민간지도층으로는 처음으로 이라크의 자이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남북불교교류와 화해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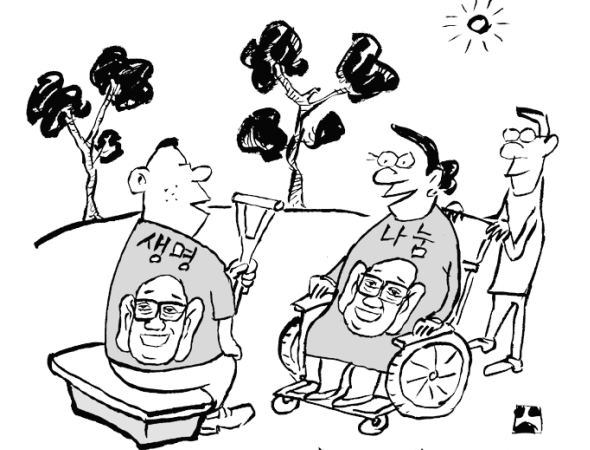
스님의 자비원력 정신은 지난 94년 '생명나눔실천회'를 창립하고 시신과 장기기증을 서약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내 사바에 남긴 육신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기증했다.

'생명나눔을 통해 오늘날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법장대중사, 그는 분명 교단의 사표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

총무원장의 육신보시! 오랜만에 들어보는 명쾌한 결정이다. 법장 대중사 분인은 물론 사부대중과 사회의 일반대중들도 숙연하게 반기리라 믿는다. 스님이 법문했던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 바람'은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비와 원력의 바람일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아끼지 말고 종성들을 향해 주고 또 주어야 한다. 아울러 스님이 떠난 종단을 잘 꾸려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곡당 법장 대중사의 명복을 삼가 법답게 축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도수(정법도량 화주)

'연대' 민명

심민섭



법장스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들었다

장애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인품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자폐증 수형선수의 아름다운 도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체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 배영 200m 경기에서 감동과 눈물의 금메달을 목에 건 김진호군(19·부산체고 2년)이 주인공. 진호군은 8월 '2분 28초 5'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하게 우승 메달을 쟁취했고, 9일 열린 자유형 200m 경기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진호군의 승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좌절과 시련, 가족들의 남모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은 진호군은 아홉 살이 돼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호군은 한 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 열한 살이 될 때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이때부터 성장교육의 일환으로 수영을 배웠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호군은 세상의 높은 편견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자폐아란 이유로 바로 집 앞 체육고등학교가 입학할 거부했다. 진호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안양에서 부산으로 집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진호군의 승리는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뤄냈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이번에는 새로운 모험을 한다. 10월 14일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해 일반인들과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편견의 물살을 가르치는 진호군의 수영. 힘찬 진호군의 스토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원적에 놀라고 '자비'에 또 놀라고...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해 주시는데 더욱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태수

○...지난 5월에 LA에 오시어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설법을 해주시고 책을 한권 주셔서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짧은 만남 긴 여운이 남았네요. 부디 왕생극락하시고 통일외의 꽃으로 다시 환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LA에서 남북통일 합창

○...마음을 두고 가신다니니 / 몸마저 두고 가십니다.

마음이, 아픔이나 슬픔을 몰라도 /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네요.

언제, 언제쯤 볼 수 있을는지 / 오래도록 평안 하시기를...

신성운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의 극락왕생을 삼가 발원합니다.

이러크 평화재건사단 정병일동 ○...덕높으셨던 큰스님의 원적소식에 한번 울고 오늘 또한번 시신기증 소식에 또한번 통곡합니다. 역시 대종사입니다. 스님을 이리 일찍 잃은 것이 더 많은 가르침과 큰 지도자를 잃은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통탄스럽지만 오늘 이 소식은 크나큰 교훈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하은

○...제가 지금까지 불교신도로서 스님의 대비가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첫 번

째 사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그동안 하시는 일을 극락세계에서도 이시기 위해 육신마저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 가시는군요. 극락에서도 부디 스님의 뜻을 불제자들이 정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국 런던에서 합창 합니다.

박지호

○...큰 스님께서 늘 곁에 계시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시다니 믿어지지 않아 며칠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큰 스님 빌 때 부끄럽지 않게 저도 정기와 시신을 기증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남은 인연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대자행

○...스님의 행적은 후배들과 큰스님들에게 큰 방향을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말로만 큰소리치던 사람들에게 허울을 벗겨낼 수 있는 거울을 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스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부다행

○...우리가 이 순간 교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그분의 유지가 계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스님들의 정서와 상좌의 반대는 어느 의미에서 합당하다. 본인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반대를 했는가.

지성과 냉정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빙의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무료공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빙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교육 참가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Topic (빙의치유법, 전생요법, 사주명리학, 최면학) and Description.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회원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자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화: (042)255-0734-5 주소: 대전시서구서문 청문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www.hypnos114.com

주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